

## 한국 5세 아동의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나레이티브 반응 경향성\*

Profiles of Story Stem Narrative Responses in 5 Year-Old Korean Children\*

이 영(Young Lee)<sup>1)</sup>

민현숙(Hyunsuk Min)<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mmon response profiles in the narrative stories of typically developing 5 year-old Korean Children. Fourteen story stems from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 Bretherton, Oppenheim, & the MacArthur Story Stem Network, 1990) were administered to 156(85 boys and 71 girls) children recruited from 8 Kindergartens in the Seoul and Gyung-gi areas. The children's responses were aggregated into 5 dimensions, based on content themes and performance scores which included emotions expressed and narrative coherence using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Robinson, Mantz-Simmions, Macfie, &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2004).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luster analysis.

5 response profiles emerged over the course of this research : Prosocial, Anxiety, Dysregulated aggression, Anxious/Avoidance, and Avoidance profiles. When 14 story stems were grouped into 3 story contexts (stories included interpersonal conflicts, moral conflicts, and empathy) and were analyz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story contexts, 3 common profiles (a Prosocial profile, a Constrained profile and an Anxiety profile) emerged across the story contexts, however, there were additional, unique profiles for each of the story contexts.

**Key Words** : 반응 프로파일(response profile), 이야기 나레이티브(story stem narrative), 표상 (representation), MSSB(MacArthur Story Stem Battery).

\* 본 논문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연구비 지원 논문임.

<sup>1)</sup> 연세대학교 교수

<sup>2)</sup>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younglee@yonsei.ac.kr

## I. 서 론

최근 유아의 부모-자녀관계나 또래와의 관계 처럼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유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한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나레이티브 반응을 가지고 개인들의 동질성과 차별성에 기초하여 군집으로 묶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von Eye & Bergman, 2003)을 통해 유아를 하나의 총체적 개인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임상집단이나 혜택 받지 못한 집단 등 초기 중재가 필요한 대상을 규명해 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유아의 생각이나 정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반응의 프로파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서적 통합성과 같은 적응적 요소들이 결여된 유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갈등상황이나 부적응적 상황에서도 보호적 요소로 작용하는 반응프로파일을 규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의 사용이 아직 기초적 단계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유아 집단의 정서적 반응 경향에 대한 프로파일조차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위험요인을 가진 아동과 부모를 조기에 진단하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다면적이고 효과적인 진단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동시에 준거 자료로서 정상집단 아동과 부모들의 일반적인 프로파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요성만 제기되어 있을 뿐 적절한 도구와 기초 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 학대와 달리 발생 후에도 외형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8세 미만 아동의 경

우 자기보고식 평정척도나 진단적 면접은 효과가 없으므로 유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유아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서학대 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해 선행 연구들(고성혜, 1992; 신영화, 1986; 이소희, 1988; 장화정, 1998)은 부모보고의 질문지법을 사용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질문지의 경우, 이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보고에 의존하는 경우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가 축소,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구조화된 면접법의 경우 유아의 제한된 인지 및 언어능력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기 보고가 어렵고 직접적인 면접의 경우 자신의 경험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므로(Buchsbaum, Toth, Clyman, Cicchetti, & Emde, 1993) 유아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유아기에는 상징적인 표상이 가능하고 지식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함이 밝혀지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나레이티브를 통해 유아의 감정, 행동, 주의, 기억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아는 놀이 나레이티브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갈등상황을 제시 받으면 그에 대한 솔직한 정서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유아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등상황을 포함시킨 정서적 사건들을 제시해 주고 유아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이야기로 꾸며보게 하는 방식으로 유아의 정신적 표상과 정서적 반응을 평가하는 맥아더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 Bretherton, Oppenhei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유아의 내적표상은 단순한 인지적 도식과는

달리 정서적이고 방어적인 요인까지도 포함하고 (Bretherton & Oppenheim, 2003), 유아의 감정, 정서적 상태, 정서적 의미구성 현상 등을 나타내 주는 통로이다(Wolf, 2003). 또한 유아의 관계에 대한 내적표상은 유아의 초기 정서적 구조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Holmberg, Roberson, Corbitt-Price, & Wiener, 2007). 유아는 계속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표상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조절하고 처리하는 등 내적표상을 조직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Bretherton & Munholland, 1999). 그러므로 유아기에 측정된 내적표상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합하여 유아가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가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적표상을 살펴보면 유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행동특성을 보이느냐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한 측정은 유아의 심리적 발달의 특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중재나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도 유용하다 (Robinson, 1997).

이야기 완성과제를 이용하여 유아의 내적표상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아가 갈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친사회적으로 관계를 표상한 유아들은 부모와 교사에 의해 좀 더 협조적이며 즐겁고, 자율적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Laible, Carlo, Torquati, & Ontai, 2004). 반면 유아가 나레이티브 반응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ible et al., 2004, Oppenheim, Emde, & Warren, 1997),

이야기 일관성은 연속적인 이야기 줄거리에 대한 계획과 같은 인지적인 과정과 정서조절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Robinson, 2007).

한편, 유아의 성에 따라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Bretherton 외(1993)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유아의 내적표상을 측정한 연구에서 여아들은 친사회적으로 갈등해결주제를 다루는 반면, 남아들은 주로 공격적인 주제로 이야기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Oppenheim 외(1997)와 von Klitzing, Kelsay, Emde, Robinson과 Schmitz(2000)도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공격적 주제는 적게 이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 주제를 많이 이야기 한다고 보고 하는 등 대체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민성혜 · 신혜원 · 이영, 2004; 임경민, 2004). 또한 나레이티브 반응에서 감정반응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기쁨을 덜 표현하고 불안은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성혜 외, 2004). 이처럼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과 기분장애(mood disturbance)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의 맥락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의 차이를 살펴본 Beresford, Robinson, Holmberg와 Ross(2007)에 의하면, 일반아동과 기분장애 아동들은 갈등이 높은 주제에서 나레이티브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기분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제시되는 갈등강도와 상관없이 모든 이야기에서 디스트레스가 높고 이야기가 내적으로 비조직적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아동들은 갈등상황이 심한 주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유아의 정서상태에 따라 이야기의 맥락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임상집단이나 혜택 받지 못한 집단 등 조기 중재가 필요한 대상을 규명해 내는 방법으로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나레이티브 반응을 군집분석하여 유아의 생각이나 정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반응의 경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Robinson, Oxford, Spieker와 Klute(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Memphis와 Denver 지역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로 군집화 되었으나, 지역별로 군집화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친사회성 유형(온화/공감이 높고 정서통합이 높은 경우), 불안형, 제한형, 비조절형의 4개 유형은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유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Memphis지역에서는 친사회성/비조절유형이 나타났고, Denver 지역에서는 공감형이 더 나타났다. Memphis 지역은 미국 남서부지역으로 상공업 도시이며 인종 중 흑인이 많은 도시이다. 반면 Denver 지역은 미국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멕시코인이 흑인보다 더 많은 도시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군집화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예민하게 반영하므로 대상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 연구들에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서적 통합성과 같은 적응적 요소들이 결여된 유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갈등상황이나 부적응적 상황에서 보호적 요소로 작용하는 반응 프로파일의 있는지 등을 찾아내기 위해 군집화분석을 통한 전형적인 프로파

일과 비전형적인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연구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완성과제(MSSB)에 대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성을 조사하여 일반 유아들의 전반적인 정서적 반응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군집분석하여 개인별 내적표상을 프로파일로 유형화한 후 내적표상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 집단에 속한 유아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일반 집단 유아의 정서적 반응 경향성에 대한 근거 프로파일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야기의 정서적 통합성과 같은 적응적 요소들이 결여된 유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의 취약점을 찾아서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일반 유아 5세가 MSSB 수행시 나타내는 이야기 반응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일반 유아 5세가 MSSB 수행시 나타내는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MSSB 이야기 주제에 따라 유아들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156명(남아

<표 1> 연구 대상 유아 및 부모의 특성

(N = 156)

변인	내용	유아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85(54.5)		
	녀	71(45.5)		
형제수	한명	38(24.4)		
	두명	97(62.2)		
	세명 이상	21(13.4)		
부모연령	20~29세			2( 1.3)
	30~39세		126(80.8)	145(92.9)
	40~49세		30(19.2)	9( 5.8)
부모학력	고졸		38(24.4)	21(13.5)
	대졸		105(67.3)	118(75.6)
	대학원이상		13( 8.3)	7(10.9)
부모직업	무직·전업주부		1( 0.8)	76(48.7)
	판매서비스직		7( 4.5)	1( 0.6)
	생산·단순직		1( 0.6)	0( 0.0)
	사무직		79(50.6)	61(39.1)
	전문직		17(10.9)	16(10.3)
	자영업		37(23.7)	1( 0.6)
	기타		10( 6.4)	1( 0.6)
가계소득	101~200만원		6( 3.8)	
	201~300만원		26(16.7)	
	301~400만원		58(37.2)	
	401만원~500만원		19(12.2)	
	500만원 이상		47(30.1)	

85명, 여아 71명)이었다. 서울 및 경기지역 유아 교육기관 8곳을 임의 선정 후, 각 기관의 유아 반 담당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에 연구 협조문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대상 유아들이 언어발달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박혜원, 곽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 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된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연구 대상 유아들의 언어성 지능점수 범위가 80~14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의 유아들 모두 언어지능이 정상범주에 속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유아의 형제수는 두 명인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고 외동이 24%, 세 명 이상이 1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대부분이 30대(93%)이었으며, 아버지도 30대가 8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각각 76%, 67%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51%, 자영업 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49%, 사무직 39%의 순이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대가 37%, 500만원 이상이 30%, 200만원대가 17%

를 차지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이야기완성과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을 통해 유아의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이 개발한 것을 이영 외(in press)가 번안한 K-MSSB(Korean-MacArthur Story Stem Battery)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인 갈등이 포함된 1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모음이다. 이 이야기모음에서 다루어지는 에피소드의 주제는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갈등, 친구와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이 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제시된 에피소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형을 움직이면서 놀이처럼 이야기를 제시하여 도입한 후, 유아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꾸며보게 해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아는 이야기 나레이티브를 스스로 만들어 각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야기 완성 과제의 모든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이야기 완성 과제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사이였으며, 이야기별 지속시간은 2-3분이었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모든 과정이 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Robinson과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이 개발한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MNCM)을 이영 외(in press)가 번안한 K-MNCM(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내용주제, 감정반응, 이야기 일관성 범주에서의 하위항목과 정서코딩범주의 코딩항목을 요인 분석한 후 하위 차원으로 범주화하는 Robinson과

동료들(2006)의 분석방법을 참고로 공감/온화(Empathy/Warmth), 불안(Performance Anxiety), 회피/위축(Avoidant/Withdrawal),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Dysregulated Aggression), 정서적 통합(Emotional Integration)의 5개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K-MNCM에 근거하여 점수화하였다. 0-2점의 점수화는 해당이야기가 없을 때는 0점, 반응이 적절하거나 조절된 경우는 1점, 반응이 과하거나 꾸민 듯한 경우에는 2점을 주는 방식이며, 0-1점의 점수화는 해당이야기가 없는 경우 0점, 해당이야기가 있는 경우 1점을 주는 방식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야기 완성 과제의 실시 절차와 채점을 위해 2004년 6월 MSSB 평정척도 지침서(manual)의 저자 중 한 명인 JoAnn Robinson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2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산출을 위해 16사례에 대해 본 연구자와 훈련에 함께 참여하였던 아동학 전공자 한 명이 평정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r)는 .87이었다.

### 2) 유아 언어성 지능검사

유아가 이야기 완성 과제를 수행하기에 언어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혜원, 곽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 K-WPSI)'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된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언어성 지능검사 79점 이하(박혜원 외, 1995)의 유아를 판별하기 위하여 본 검사를 사용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1인과 아동학을 전공한 석사과정생 3명과 박사과정 1명 등 총 5명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의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기 전 유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검사자가 유아와의 놀이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였다. 유아들이 제시된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이제 ○○ 차례”라고 이야기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비디오 녹화에 관해 처음에는 유아들이 의식하였으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이야기에 몰입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가 끝난 후 약 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K-WPPSI 중 언어성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유아의 성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이야기 완성 과제의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별 표준점수( $z$ 점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거리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군집의 수를 바탕으로 하여  $k$ 개의 시작점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화를 시행하였다. 또한 군집유형에 따른 나레이티브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 경향

MSSB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내용주제와 수행코드 하위 항목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반응 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며 반응한 내용 중에서는 남아, 여아 모두 정서 통합차원의 반응이 가장 많았고 이야기 일관성도 중간보다 높았다. 그리고 회피 위축 반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동의 성에 다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온화차원( $t = -2.27, p < .05$ ), 제휴( $t = -2.98, p < .01$ ), 그리고 슬픔( $t = -2.75, p < .01$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보였고, 부정적 종결에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보였다( $t = 2.87, p < .01$ ).

### 2.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

#### 1) 이야기 전체에 대한 반응 프로파일

5세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MSSB에서 제시된 전체 14개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군집분석 한 결과, <표 3>과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개의 프로파일 유형으로 군집화되었다. 즉, 우리나라 만 5세 유아들이 보여준 14개

<표 2> 나레이티브 반응의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및 성에 따른 *t* 검증결과

(N = 156)

차원	내용주제와 수행코드 하위 항목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전체	남아	여아	<i>t</i>
				( <i>n</i> = 156) <i>M</i> ( <i>SD</i> )	( <i>n</i> = 85) <i>M</i> ( <i>SD</i> )	( <i>n</i> = 71) <i>M</i> ( <i>SD</i> )	
공감/온화	공감	0~2	0-.71	.25( .15)	.23( .16)	.27( .15)	-1.30
	제휴	0~2	0-.71	.27( .17)	.24( .15)	.32( .19)	-2.98**
	애정	0~2	0-.79	.12( .11)	.10( .01)	.14( .13)	-1.95
	보상/죄의식	0~2	0-.43	.10( .09)	.10( .09)	.11( .09)	-4.63
	긍정표상	0~1	0-.71	.25( .17)	.23( .03)	.26( .17)	-1.00
	전체	0~1.8	0-.53	.20( .10)	.18( .10)	.22( .10)	-2.27*
불안	대담회피	0~1	0-1	.15( .24)	.16( .23)	.15( .24)	.20
	무반응	0~1	0-.71	.02( .09)	.02( .09)	.02( .10)	-1.16
	불안행동	0~2	0-2	.71( .46)	.72( .49)	.69( .43)	.501
	전체	0~1.3	0-.95	.29( .20)	.30( .20)	.29( .20)	.44
회피/위축	자기배제	0~1	0-.43	.05( .09)	.06( .09)	.05( .09)	.35
	이야기반복	0~2	0-1.50	.14( .21)	.12( .18)	.17( .23)	-1.54
	주제이탈	0~1	0-.79	.15( .18)	.14( .18)	.15( .17)	-2.22
	공감거부	0~1	0-.36	.05( .08)	.06( .09)	.05( .07)	.77
	가족배제	0~1	0-.57	.09( .12)	.08( .12)	.09( .12)	-.67
	분리거부	0~1	0-.14	.03( .05)	.03( .05)	.04( .04)	-1.44
	갑작수면	0~1	0-.64	.09( .12)	.07( .11)	.10( .13)	-1.47
	조작놀이	0~2	0-1.57	.21( .28)	.22( .27)	.20( .28)	.33
	해리행동	0~1	0-.57	.02( .07)	.02( .05)	.02( .08)	-.29
	전체	0~1.2	0-.42	.09( .07)	.09( .06)	.10( .07)	-.83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공격	0~2	0-1.71	.35( .38)	.37( .39)	.32( .36)	.80
	상해	0~1	0-.57	.11( .11)	.11( .12)	.11( .10)	-.07
	위험	0~2	0-1.0	.10( .17)	.11( .19)	.09( .14)	.55
	파괴	0~2	0-.64	.04( .09)	.05( .11)	.03( .06)	1.25
	부정직	0~1	0-.50	.04( .06)	.04( .07)	.03( .04)	1.04
	감등고조	0~1	0-.64	.08( .14)	.09( .12)	.06( .01)	1.93
	부정적종결	0~1	0-.86	.14( .17)	.17( .20)	.10( .10)	2.87**
	유아힘	0~2	0-.50	.06( .07)	.06( .07)	.07( .07)	-1.05
	검사자통제	0~1	0-.86	.16( .21)	.14( .21)	.18( .22)	-1.31
	전체	0~1.4	0-.48	.12( .10)	.13( .01)	.11( .08)	1.04
정서적 통합	기쁨	0~2	0-1.29	.21( .26)	.19( .25)	.23( .27)	-1.00
	슬픔	0~2	0-.71	.11( .14)	.08( .12)	.14( .15)	-2.75**
	분노	0~2	0-.57	.04( .10)	.04( .11)	.04( .09)	.32
	디스트레스	0~2	0-1.43	.20( .24)	.18( .20)	.22( .27)	-1.06
	염려	0~2	0-1.79	.30( .33)	.31( .34)	.29( .32)	.362
	이야기일관성	0~10	1.29~8.86	6.34(1.16)	6.28(1.08)	6.53(1.13)	-1.51
	전체	0~12	1.51~9.03	6.57(1.11)	6.45(1.09)	6.71(1.12)	-1.38

\**p* < .05. \*\**p* < .01.

이야기에 대한 반응 프로파일에서는 공감반응과 정서통합반응이 모두 높은 친사회성 유형(42.3%),

불안반응만 높게 나타난 불안유형(21.8%),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을 많이 보인



비조절공격유형(21.2%), 불안반응과 회피반응이 모두 높게 나타난 불안/회피유형(8.3%),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고 회피하는 회피유형(6.4%)으로 군집되었다.

친사회성 유형은 공감반응과 정서 통합반응이 높고 나머지 차원에서는 반응이 매우 낮은 U자 모양을 보이는 전형적인 프로파일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검사자가 이야기를 제시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였을 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등장인물들이 같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애정을 표시하고, 부모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주제와 맥락에 따라 기쁨과 슬픔,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일관적이고 풍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주제나 진행 내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불안유형은 불안 행동 반응정도는 높고 공감/온화, 회피/위축,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정서적 통합 등 나머지 반응은 모두 낮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이야기 완성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는 워밍업 시간에는 무난하였으나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작하여 갈등주제를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기대거나, 입술을 깨물고, 다리를 흔들거나 머리카락을 돌돌 마는 등의 행동, 혹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야기 주제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는 내용에서는 검사자가 다시 질문하여도 제시된 이야기를 완성하기를 어려워하여 “몰라요.” 또는 “그냥 끝나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검사자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며 대답 자체를 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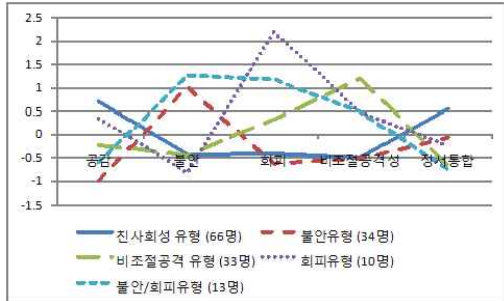
비조절공격유형은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을 높이 보인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갈등상황이 제시되면 맥락과 상관없이 공격적인 요소나 비도덕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나타내었다.

회피유형은 회피위축 반응을 높이 보인 유형으로서 이야기에서 갈등의 정도가 특히 높아지는 경우 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모두 잠들었어요”라고 갑작스런 수면으로 이야기를 돌려버리거나 제시된 인형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반응을 주로 보였다.

불안회피유형은 불안행동 반응과 회피위축 반응이 높고 나머지 반응은 낮은 유형으로써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갈등상황이 제시되면 지

<표 3>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M(%))

반응 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 유형		비조절공격 유형		회피 유형		불안/회피 유형						
	66(42.3)		34(21.8)		33(21.2)		10(6.4)		13(8.3)						
공감/온화	.57	.83	.70	-1.08	-.88	-1.00	-.37	-.01	-.23	.16	.54	.35	-.83	-.42	-.61
불안	-.39	-.46	-.42	1.13	.85	1.02	-.41	-.49	-.44	-.91	-.76	-.83	1.02	1.47	1.26
회피	-.43	-.38	-.40	-.65	-.57	-.62	.33	.31	.32	1.80	2.60	2.20	1.15	1.19	1.17
비조절공격성	-.45	-.55	-.50	-.63	-.34	-.51	1.35	.94	1.19	.39	.57	.48	.91	.12	.49
정서통합	.64	.47	.56	-.12	-.02	-.08	-.15	-.73	-.66	-.11	-.37	-.24	-.24	-1.20	-.76



<그림 1>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

속적으로 다리를 떨거나 고개를 떨구는 등의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이야기에 대해 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인형을 만지작거리는데 등의 반응을 함께 보였다.

2)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반응 내용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이 실제 유아의 반응 내용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들을 크게 친사회성 유형에 속하는 집단과 나머지 4개 유형(불안형, 비조절형, 불안회피형, 회피형)에 속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유아의 감정반응,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 그리고 언어 지능면을 중

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과 감정반응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기타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디스트레스( $t = -2.98, p < .05$ ), 불안행동( $t = -4.13, p < .001$ )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애정을 표시하고,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주제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보이는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분노나 디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행동을 덜 보였다.

또한 친사회성 유형과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 반응( $t = 8.97, p < .01$ )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부모에 대해 보호적이고, 양육적이고, 애정적이거나 도움을 받는 등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언어지능에서는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유아의 반응

(N = 156)

	친사회성 유형(n = 66)		기타유형(n = 90)		t
	M(SD)	M(SD)	M(SD)	M(SD)	
감정반응	기쁨	.21( .21)	.21( .30)		-.037
	슬픔	.11( .15)	.10( .12)		.67
	분노	.02( .08)	.05( .11)		-1.66
	디스트레스	.14( .16)	.25( .27)		-2.98*
	염려	.28( .29)	.32( .35)		-.62
	불안행동	.54( .38)	.83( .49)		-4.13***
긍정적 표상	.36( .16)	.16( .11)		8.97***	
언어지능	105.21(13.02)	102.09(14.68)		1.38	

\* $p < .05$ . \*\*\* $p < .001$ .

<표 5> 대인간 갈등주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M(%))

반응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 유형	비조절공격 유형	회피 유형	제한유형
	63(40.4)	33(21.2)	15(9.6)	11(7.1)	34(21.7)
공감/온화	0.63	-0.65	-0.12	0.41	-0.62
불안	-0.59	1.11	-0.21	-0.88	0.39
회피	-0.42	-0.57	0.26	2.41	0.44
비조절공격성	-0.38	-0.49	2.44	0.24	0.03
정서통합	0.43	0.39	-0.47	0.08	-1.01

### 3. 이야기 주제 맥락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과 반응 경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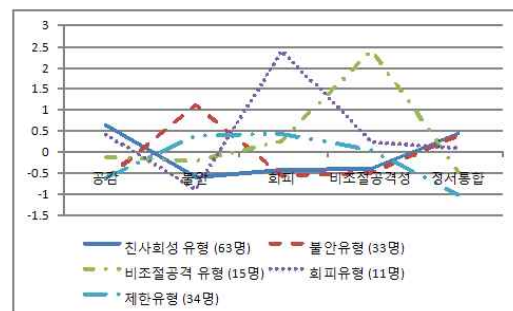
MSSB에서 제시된 14개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크게 대인간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잃어버린 강아지, 잃어버린 열쇠, 격리와 재결합, 아동 배제), 도덕적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주스 옆지르기, 사탕훔치기, 약상자, 과자상자), 그리고 공감을 다루는 이야기(어머니 두통, 어머니 선물, 셋은 너무 많아요, 뜨거운 냄비, 공원에서 바위에 기어오르기) 등 3개의 이야기 주제 맥락 별로 묶어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의 경향성을 K-means 군집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인간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 맥락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이야기과제이다. 이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일반적인 5세 아동들의 반응적 경향성을 보면, ‘공감’과 ‘정서통합’이 높고 나머지 차원의 반응은 매우 낮은 전형적인 친사회성 프로파일이 가장 많았다(40%). 다음으로는 모든 반응 차원이 평균보다 낮은 제한유형(약22%)과 ‘불안 반응’이 뚜렷이 높은 불안유형(약21%)이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 해당되는 아동의 숫자는 많지 않으나 뚜렷

한 특성을 가진 유형으로 비조절공격유형(10%)과 회피유형(7%)이 있었다(표 5, 그림 2 참조).

둘째, 도덕적 갈등 맥락에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5세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른 반응은 거의 없이 주로 회피적인 반응을 위주로 해결하는 회피형(45%)이 가장 많았다. 이 주제에서도 친사회성 유형(35%)과 제한유형(21%), 비조절공격유형(11%)이 많이 나타났으며, 많지는 않지만 불안유형(9%)이 나타났다(표 6,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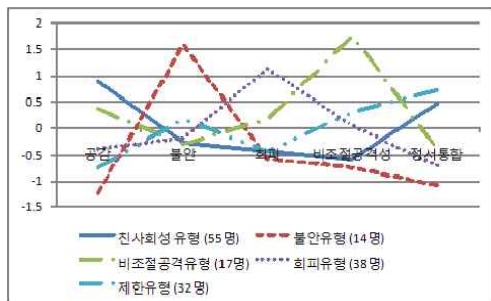
셋째, 공감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제시되는 맥락에서 공감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 반응으로 제한형이 가장 많았으며(29%), 공감반응과 정서통합반응이 모두 높은 친사회성 유형(27%)은 줄어들고 그 대신 정서통합이 낮으면서



<그림 2> 대인간 갈등주제 이야기반응에 대한 프로파일 유형

<표 6> 도덕 주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M%)

반응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 유형	비조절공격 유형	회피 유형	제한 유형
	55(35.3)	14(9.0)	17(10.9)	38(44.9)	32(20.5)
공감/온화	0.89	-1.22	0.38	-0.38	-0.75
불안	-0.27	1.58	-0.31	-0.2	0.17
회피	-0.43	-0.58	0.18	1.13	-0.44
비조절공격성	-0.57	-0.75	1.76	0.05	0.31
정서통합	0.47	-1.09	-0.4	-0.71	0.72



<그림 3> 도덕 주제 이야기 반응에 대한 프로파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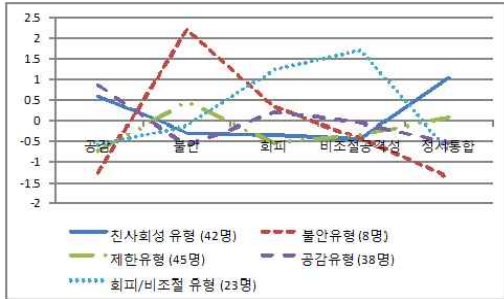
공감반응이 높은 공감유형(24%)이 많았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회피와 비조절공격성이 동시에 높은 회피/비조절유형(15%)이 나타났으며, 많지는 않지만 ‘불안반응’만이 극히 높은 불안유형(5%)도 있었다(표 7, 그림 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이야기 주제 맥락별 반응들

의 프로파일을 비교해 보면 먼저,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제시된 이야기들의 주제와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 프로파일 유형은 친사회성 유형과 제한형, 불안유형이었다. 즉, 이야기 주제나 맥락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5세 아동들은 갈등을 해결할 때 반응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에 공감해 주거나 애정을 보이는 등 공감적인 반응이나 기쁨, 슬픔, 염려, 스트레스 등의 정서 반응을 보이고 이야기 일관성이 높은 정서통합의 반응을 좀 더 많이 보이면서 불안, 회피, 비조절 공격성의 반응은 극히 적게 보이는 친사회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거의 모든 반응이 간략하고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극히 간단한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종결하는 제한형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표 7> 공감 주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유아의 나레이티브 유형별 반응점수(Z점수) (N = 156, M%)

반응차원	친사회성 유형	불안유형	제한유형	공감유형	회피/비조절유형
	42(26.9)	8(5.1)	45(28.8)	38(24.4)	23(14.7)
공감/온화	0.58	-1.26	-0.75	0.87	-0.60
불안	-0.30	2.20	0.46	-0.61	-0.11
회피	-0.34	0.34	-0.54	0.20	1.23
비조절공격성	-0.45	-0.43	-0.34	-0.04	1.72
정서통합	1.07	-1.37	0.09	-0.55	-0.74



<그림 4> 공감 주제 이야기에 대한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맥락에서 대담을 회피하거나, 반응 자체를 보이지 않거나 다리를 떨거나, 머리카락을 마는 등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이는 불안유형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인간 갈등과 도덕적 갈등 이야기와 공감적 갈등 이야기 간에 유아의 반응유형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대인간 갈등과 도덕적 갈등을 다룬 이야기에서는 친사회성 유형, 제한유형, 불안유형이외에 ‘비조절공격성’ 반응이 뚜렷하게 높은 비조절공격 유형과 ‘회피’ 반응이 뚜렷이 높은 회피유형이 나타났던 반면, 공감적 갈등 주제를 다룬 이야기에서는 ‘정서적 통합’ 없이 ‘회피’와 ‘공감’ 위주의 반응을 보이는 공감유형과 ‘공감’이나 ‘정서통합’은 극히 낮으면서 ‘회피’, ‘비조절된 공격성’ 반응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회피/비조절 공격 유형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들은 제시된 이야기의 맥락이나 갈등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MSSB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야기 내용의 주제와 수행코드 모두 전반적으로 매우 반응이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민성혜와 이영(2006), 민현숙(2009)의 연구와 유사하며, 미국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et al., 2009)와 비교해보면 서양의 유아들보다 나레이티브 반응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면서도 자유로운 표현의 허용정도가 낮고 순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김현덕, 1992),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아들이 미국 유아들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고 특히 이 과제가 모두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유아들의 반응이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을 아동의 성별로 비교해본 결과, 공감/온화차원 전체와 제휴항목, 그리고 부정적 종결 및 슬픔 정서에서만 유의한 성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온화 차원의 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제휴와 슬픔의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남이는 여아보다 부정적 종결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공격적인 주제를 적게 이야기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민현숙, 2009; 민성혜 외, 2004; 임경민, 2004; Oppenheim, et al., 1997)과 유사하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더 공감적 관심을 보이고(임경민, 2004; Levine & Hoffman, 1976; Robinson & Little, 1994), 타인의 곤경에 반응적이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온화 주제와 수행코드에서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 5세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이 어떠한 프로파일로 유형화 되는지 군집 분석한 결과 5개의 프로파일 유형으로 군집되었다. 즉, 공감/온화 반응과 정서통합 반응이 모두 높은 특성이 있는 친사회성 유형(42.3%)과 불안반응만 높게 나타난 불안유형(21.8%) 공격적이고 비조절 반응을 많이 보인 비조절 공격적 유형(21.2%), 불안반응과 회피 반응이 모두 높게 나타난 불안/회피유형(8.3%),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회피유형(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Robinson과 동료들(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친사회성 유형(35.6%)형, 불안유형(22.0%), 제한유형(17.9%), 비조절유형(16.9%), 그리고 친사회성/비조절유형(7.6%)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즉, 두 집단 모두 친사회형과 불안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일부 비조절형이 있었으나, 기타 유형 중에 본 연구에서는 회피반응을 많이 보인 유아들의 집단이 나타난 반면, Robinso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어떤 형태론든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거의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제한형과, 반응은 하되 공감과 정서통합과 비조절적 공격성을 위주로 반응한 집단이 나타났다. 그러나 Robinson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 차원이 아닌 4개의 하위 차원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친사회형은 두 문화권에서 모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유형이며 불안 유형 또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 5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군집화한 연구는 없으나 최근 몇몇 연구에

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을 군집화하였는데, 만 4세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민현숙(2009)의 연구에서 친사회형(28.0%), 회피/비조절형(28%), 제한형(25.6%), 그리고 불안형(18.4%)으로 군집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만 4, 5, 6세의 입양아의 내적표상을 연구한 신혜원과 민성혜(2008)의 연구에서는 가정위탁아와 연장입양아의 경우 공격/회피형(66.5%, 35.3%)과 불안형(20.0%, 29.5%)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일반유아의 경우 제한형(37.5%)과 친사회형(32.5%)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고 일관된 결과는 없지만 일반 유아의 경우 공통적으로 친사회형과 불안형이 가장 보편적인 프로파일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유아들은 대체로 정서적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 공감적인 반응을 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표현을 많이 보인다. 동시에 정서적으로 갈등이 심하게 유발되는 상황에서는 대답하기 어려워하고, 검사자의 눈을 피하며 반응하려 하지 않거나, 다리를 떨고 입술을 깨무는 등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였다. 반면에 가정위탁아와 연장입양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양육된 유아들은 일반 유아들과 달리 친사회형보다는 기타 유형의 프로파일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집분석에 의해 유형화된 프로파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프로파일 유형에서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집단의 유아들과 기타유형(불안형, 비조절형, 불안회피형, 회피형)에 속한 유아들간의 감정 반응, 표상, 언어 지능 면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언어 지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친사

회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기타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감정반응에서 분노, 디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행동 등의 감정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긍정적 표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기타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 많이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레이티브 반응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앞으로의 마음 상태 내지는 문제 행동들까지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행동과 표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신혜원과 이영(2005)의 연구에서 회피애착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불안의 부정적 정서가 많이 나타났고, 비조직 애착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와 디스트레스 반응과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Warren 외(1996)의 연구결과, 그리고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가용성이 높게 나타난 민현숙(2009)의 연구, 애착행동에서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문제 상황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표상했다고 한 Cassidy(1988)의 연구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보인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유아들의 문제 행동 가능성과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 특성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친사회성 유형과 기타유형에 속한 유아들의 언어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이는 K-ABC로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친사회성 유형에 속한 유아들의 지능이 가

장 높게 나타난 Robinson 등(200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정상적인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유아의 지능전체가 아닌 언어지능만을 검사한 결과였기 때문에 지능에서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MSSB 이야기 모음들을 이야기 맥락에 따라 대인간 갈등 이야기, 도덕적 갈등 이야기, 공감 이야기로 나누어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대해 군집분석한 결과, 이야기 맥락별로 공통된 프로파일 유형도 있었지만 다소 차이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친사회성 유형과 불안유형, 제한 유형의 프로파일이 있었지만, 대인간 갈등 이야기와 도덕적 갈등 이야기에서는 비조절형과 회피형이 나타났으며, 공감적 갈등 이야기에서는 공감유형과 회피/비조절유형이 나타났다. 즉, 만 5세 유아들은 대인간 갈등이나 도덕적 갈등과 같은 이야기나 상황에서는 유사한 프로파일 유형을 보였지만 공감적 갈등 이야기에서만 공감형과 회피/비조절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유아들이 이야기 맥락에 따라 대처하는 반응에 차이를 보인 데 대해 이야기에서 주어지는 갈등의 강도와 주제에 따라 유아들이 내적인 디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Bereford 등(2007)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립적인 이야기와 갈등이 심화된 이야기 등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유아의 생리적 반응이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Haim, Fox, VanMeenen, & Marshall, 2004)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일반 유아들은 모든 갈등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친사회적 반응으로 대처하거나 불안함을 나타내는 반응들을 보이는 반면, 이야기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 대상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일반 유아들은 교육환경에서 대인간 갈등이나 도덕적 갈등과 같은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교사들은 이 상황을 교육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5세경이 되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내고,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공감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공감과 관련된 상황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는 노출될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어 그러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파일 유형이 이야기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반 유아들은 갈등 상황이라도 맥락에 따라 자신들의 반응 전략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다양한 부적응적 상황에 처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축적을 통해 어떤 반응적 전략이 보호적 요소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야기 완성 과정의 맥락에 따른 유아의 내적 표상 프로파일 분석은 많은 연구가 없어 우리나라 유아의 프로파일 유형특성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여러 특성을 가진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이야기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적응적 능력, 예를 들어 정서 조절 능력이나 사회적 유능성 등은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양한 정서적 사건이나 강한 정서적 흐름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자극에 대해 유아가 이야기로 의미를 구성해가고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유아가 얼마나 정서조절을 적절히 하고 있는냐를 반영한다(Oppenheim, et al., 1997; Sher-Censor & Oppenheim, 2004). 따라서 MSSB 이야기에 대해

공감반응을 많이 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풍부히 하고, 논리적인 이야기의 일관성을 보여 정서통합이 높은 유아는 이야기의 감정반응, 표상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조절하며 사회적으로 유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5세 아동 156명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한국 5세 유아들의 나레이티브 프로파일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였으나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의 표준화된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총체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유아의 개인 특성이나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의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중재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덕(1992). Socialization process of children within the family-cross-cultural study in Korea, Japan, India, and the U.S.A. **교육학연구**, 30, 263-278.
- 민성혜·신혜원·이영(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 발달. **아동학회지**, 25(6), 153-170.
- 민성혜·이영(2006). 이야기를 통한 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아동학회지**, 27(3), 81-100.
- 민현숙(2009).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곽금주·박경배(2002).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 검사(K-WIPPS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환



- 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원 · 민성혜(2008). 가정위탁유아, 연장입양유아와 일반유아의 내적표상에서의 차이. *아동학회지*, **29**(3), 157-174.
- 신혜원 · 이 영(2005). 3-4세 유아의 애착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89-110.
- 이소희(1988).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정의, 범주, 기준 설정을 위한 탐색, *사회복지전문연구지 동광*, **No. 85**, 19-41.
- 이 영 · 민성혜 · 신혜원 · 유영미(in press). Korean-MacArthur Story Stem Battery. 유아마음읽기 연구회.
- 이 영 · 민성혜 · 신혜원 · 유영미 · 민현숙(in press). 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 유아마음읽기 연구회.
- 임경민(2004). 유아 내적표상과 사회적 상호작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eresford, C., Robinson, J. L., Holmberg, J., & Ross, R. G. (2007). Story stem responses of preschoolers with mood disturbanc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 255-270.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Bretherton, I., & Oppenheim, D. (2003).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reflections about meaning.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pp. 55-8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 in attachment relationship :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9-111). New York : Guilford Press.
- Buchsbaum, H. K., Toth, S. L., Clyman, R. B., Cicchetti, D., & Emde, R. N. (1993). The use of a narrative story stem technique with maltreated children :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603-625.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Haim, Y. B., Fox, N. A., Van Meenen, K. M., & Marshall, P. J. (2004). Children's narrative and patterns of cardiac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4**, 238-249.
- Holmberg, J., Roberson, J., Corbitt-Price, J., & Wiener, P. (2007). Using narrative to assess competencies and risks in young children : Experiences with high risk and normal popul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8**, 647-666.
- Laible, D., Carlo, G. Torquati, J., & Ontai, L.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as assessed in a doll story completion task : Links to parenting, social competence, and externalizing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3**, 551-569.
- Lee, J., Robinson, J., Min, S., Min, H., & Shin, H. (2009). Profiles of narrative responses :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five-year-old Korean and U. S. children.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Levin, L., & Hoffman, M. L. (1976). Early sex difference in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7-558.
- Oppenheim, D., Emde, R. N., & Warren, S. (1997).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 of mothers : Their development and associations with child and mother adaptation. *Child development*, **68**, 127-138.
- Robinson, J. (1997). Children' story stem response : A measure of program impact on development risks

- associated with dysfunctional parenting. *Child Abuse & Neglect*, 24, 99-110.
- Robinson, J. L. (2007). Story stem narrative with young children : Moving to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 179-185.
- Robinson, J. L., Mantz-Simmions, L., Macfie, J., Kelsay, K., Holmberg, J., &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 (2004). *The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 Unpublished document.
- Robinson, J. L., Oxford, M., Spieker, S., & Klute, M. M. (2006, July). Profiles of children's narrative response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Biennial Meeting, Paris, France.
- Robinson, J., & Little, C. (1994).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twin dyads : Effect on the organization of relationships. *Psychiatry*, 57, 22-31.
- Sher-Censor, E., & Oppenheim, D. (2004). Coherence and representations in preschoolers' narratives :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in infancy. In . W. Pratt, & B.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 Across time and generations* (pp. 78-8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on Eye, A., & Bergman, L. R. (2003). Research strategi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Dimensional identity and the person-oriented approa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553-580.
- von Klitzing, K., Kelsay, K., Emde, R. N., Robinson, J., & Schmitz, S. (2000). Gend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five-year-olds play narratives and associations with behavior rating.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017-1023.
- von Klitzing, K., Stadelmann S., & Perren, S. (2007). Story stem narratives of clinical and normal kindergarten children : An content and performance associated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 271-286.
- Warrens, S. L., Oppenheim, D., & Emde, R. N. (1996). Can emotions and themes in children's play predict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331-1337.
- Wolf, D. P. (2003). Making meaning from emotional experience in early narrative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pp. 27-54).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2010년 8월 5일 투고, 2010년 8월 30일 수정  
2010년 8월 31일 채택